

# 다함이 없는 사랑

천수해리요 가정 인사드립니다. 봄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겨울은 추운 날이 많아서 유독 따뜻함을 기다리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따뜻함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본성적인가 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따뜻한 사랑을 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3월을 되돌아 보며 정리를 하였습니다.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 길이 많이 남았지만, 문득 드는 생각은 이렇게 하루 하루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겠구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 훈련을 통과하는 것

현재 저희 가정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은 새로운 환경에서 이전의 경험들을 활용하되 의지하지 않는 훈련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기에 지금의 상황은 이전에 이미 경험한 것들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동일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하는 아내와 제가 이전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저희는 포항 한동대에 있는 아릴락 (<http://아릴락.kr>)에서 언어학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언어학을 위주로 배우는 것이지만 훈련의 개념을 가지고 만든 과정이기에 여기에 임하는 아내와 저는 정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해야 할 숙제가 매일 매일 쏟아집니다. 그 모든 것을 제대로 하려면 배우는 것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가능할 수준입니다. 아니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도 그것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얼마큼 해야 할지 수준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부가 주된

과업인 십대의 학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가정이 있는 마흔을 바라보는 가장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받는 언어학 훈련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아야 할 가정이 있고, 주일이 되면 지역 교회를 돕는 사역이 있습니다. 가정과 학업, 사역이 현재 저에게 주어진 집중해야 할 영역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업과 가정, 사역을 동시에 했었습니다. 그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 비슷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다릅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공부를 하며, 아이들은 커졌으며, 나이를 더 먹었으며, 사역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하루 일과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전 8시 45분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수업과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5시 20분쯤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떨어져 있던 식구들이 모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정서적인 필요들을 채우는 것과 복습과 숙제를 하는 것은 늘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상의를 하여서 역할 분배를 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하고, 그 시간부터 늦은 시각까지 아내의 공부를 합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간이 매일 매일 반복된답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못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체력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의 상황과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들입니다. 체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달라졌으며,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훈련의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훈련은 어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그 훈련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는 사

람들은 그 등수에 상관없이 장교로 인정을 해 줍니다. 장교로서의 합당한 권위는 사관학교의 엄중한 훈련을 다 끝마친 사람이기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엄중한 훈련과 그 훈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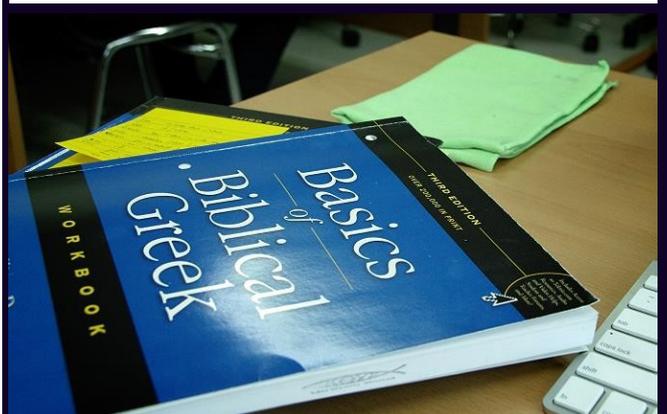
이 이야기는 버거운 훈련을 대하는 저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버거운 훈련이기에 이 훈련을 통과하는 것이 아내와 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적으로 이 언어학 훈련을 마치는 것은 저의 중요한 목표가 아닙니다. 언어학을 배우는 이 기간이 하나의 훈련으로서 이 훈련을 고민하며, 힘겹게 통과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훈련을 통과하였을 때 아내와 제가 더 성숙하고 변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피곤한 몸과 여러 고민을 가지고 살아내려 합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는 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두 손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헬라어와 문화인류학을 배우요!

현재는 헬라어와 문화 인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두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 그만큼 정신이 없긴 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앞으로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참 신기한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에 주어와 동사를 다 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한 단어에 과거인지 미래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도 다 표기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두 단어를 써서, 두 개의 문장(주절과 종속절)을 만드는 마술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에 신대원 시절 배웠던 것이 톡톡히 효과를 발휘하지만 암기해야 할 법칙과 단어들이 많아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저도 그러한데, 처음 배우는 아내가 이 수업을 따라간다고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관찰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우리의 일상을 관찰하다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꽤 많은 것들에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 질문을 말입니다. 문화 인류학 시간 페이퍼 중 관찰을 토대로 써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집에서 멀지 않은 국립 공원 안에 있는 사찰을 선택했습니다. 이전에도 가 본 적이 있고, 그러한 사찰은 이곳이 아닌 곳도 많이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작심하고 하나씩 살펴보니 신기

하고,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이 발견되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문화재 안내하시는 분에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뷰를 한 분 중에 의도치 않게 주지 스님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짧은 관찰로 모든 것을 다 알았다 할 수 없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깊이 자리한 문화와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찰에 가게 된다면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관찰할 수 있는 도구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카메라를 사서 사진을 찍기 이전에 식물원이나 수목원과 같은 곳은 참 지루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뷰 파인더를 통해 보기 시작하면서 식물원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카메라라는 도구로 인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에 배우는 헬라어와 문화 인류학도 이런 도구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울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해리요's Story

#### “태극띠가 뭐게요?”

막내 요한이의 말입니다. 어느 날 식사 기도 중 요한이가 태권도 학원에 다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집 근처의 태권도 학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는 이유는 쑥스러움이 많은 요한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 힘을 잘 사용하도록 등등이었습니다. 덕분에 요한이는 집에 와서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위와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태극 띠? 그게 뭘까 몰랐습니다. 요한이에게 되물어 보았지

요.(요한이는 자기는 알고 아빠가 모르는 것을 설명할 때 정말 신나 합니다.) 요한이 설명에 의하면 파란색과 빨강색이 함께 있는 띠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극띠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태권도를 배울 때와는 띠 체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초록띠, 보라띠, 태극띠 등등... 저의 시대에는 그런 것은 품띠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품띠 외에도 태극띠도 존재합니다. '품띠만 세대'인 저와 '태극띠도 세대'인 요한이는 사랑 안에서 잘 공존하고 있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노란띠가 되었어요.

####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와 제가 아침에 학교 가는 시간은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보다 먼저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해나와 리나보다 나중입니다.(요한이는 유치원 후 태권도 학원에 가서 저희와 오는 시간이 비슷합니다.) 아침에 잘 가는 지, 방과 후 집에는 잘 오는지, 집에 와서 시간은 잘 보내는지 늘 소소한 걱정이 마음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

하기에 아이들 연락을 위해서 수소문 해서 얻은 핸드폰을 하나씩 장만해 주었습니다. 핸드폰을 주고 난 후에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나 불편한 마음은 더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고, 집에 올 때 맞이해 주고픈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안되는 상황이 아직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내가 해나와 리나에게 했더니 아이들

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럴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됩니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 두 손을 모아 함께 하며...

### 후원 안내

외환은행

303-04-00019-349

예금주) 한국 해외 선교 회

단체명으로 되어 있는 저희 가정의 가상 계좌 번호입니다. 후원을 처음 하실 때에는 송금 전 또는 후에, 성경번역 선교회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재정간사와 통화를 해주세요.

재정담당 간사

070-8670-6360

홈페이지

<http://gbt.or.kr>

### 연락처

인터넷 전화

070-8265-7357

이동 전화

010-4765-7357 (엄)

010-6204-7334 (안)

전자 우편

[chonsue@naver.com](mailto:chonsue@naver.com)  
[sueaahn@naver.com](mailto:sueaahn@naver.com)

페이스 북

<http://ww.facebook.com/suea.ahn>

1.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2. 파송 교회인 서문교회와 협력하는 오산 서문, 청학 중앙 교회와 유니버설 케어 선교회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이 임하기를
3. 아릴락의 시간이 단지 지식적인 배움과 훈련이 아닌 통합적인 배움과 훈련이 시간이 되기를
4. 아내가 체력적으로 힘겨운데 체력을 잘 기르고 강건할 수 있도록
5. 해나, 리나가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유익하게 채워지고, 요한이가 태권도를 배우면서 체력적으로 버거워하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6. 지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상 : 해맞이 공원 / 경북 수목원 / 해맞이 공원에서 해리요

중 : 보경사 요한/ 한동대 수아

하 : 보경사 천영(문화 해설자와 함께)